

# ‘개항 100주년’ 해양복합관광 거점도시 조성 박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여수개항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실행과제를 발굴하는 등 해양복합관광거점 항구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수항 전경. 여수시 제공

## 여수비전수립 개항100년사 발간 수산물류 중심 여수발전 축 항만공원 등 9개 사업 시동

여수항은 수산 물류 중심항이자 무역항으로 여수 발전의 중심축이었으며 시민의 애환과 풍요, 추억과 역사가 녹아있는 삶의 터전이다.

민선 8기 여수시는 여수 개항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실행과제를 발굴하는 등 여수항을 사람과 공존하는 해양복합관광 거점 항구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 아래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오는 4월1일 이순신광장에서 ‘여수개항100주년 기념식’이 펼쳐진다. 여수항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비전선포식이 열린다. 선포식에서 그려질 ‘여수항 미래 100년의 청사진’에 기대가 모아진다.

### ●여수항, 어항→해상 관광거점항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이 주둔했던 여수항은 1923년 4월1일 거문도항, 성산포항 등 18개 항과 함께 조선과 대만, 사할린 사이에서 선박 및 화물의 출입을 할 수 있는 ‘세관 지정항’으로 지정되면서 무역항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왔다. 100년 동안 여수항은 변화와 발전을 통해 모습과 기능, 역할이 변해왔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여수항은 일제 주요항구가 돼 인력과 물자의 이동 통로 역할을 했다.

일본으로 쌀·면화·수산물·광산물 등이 실려 나갔고 잡화·의류·의약품·기계 등

이 주로 들어왔다. 부산을 통해 수입되던 물품들이 여수로 들어오면서 전국 상인들이 여수로 모여드는 등 일본상품 교역항구로 호황을 누렸다.

항구의 무역 기능이 활성화 되면서 여수는 부산항과 함께 남해안 주요 무역항으로 자리잡았다. 광복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시물자 도입과 종전 이후 원조물자 하역장소를 전담하는 항구 역할을 했다.

여수항은 개항질서법상으로 1949년 개항했으며 1967년 1종항으로 지정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현재 여수 오토도 앞 자산공원을 중심으로 옛 도심 쪽은 구항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주변은 신항과 신복항으로 구분된다. 구항은 연안어업 및 여객수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엑스포장인 신항은 국제 해상관광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 ●해양복합관광 거점 여수항

여수시는 지난해 7월 용역을 통해 ‘여수 개항 100년사’를 확보집과 함께 2권으로 발간했다. 여수항의 100년을 돌아



여수항 사업현장을 시찰하고 있는 정기명 여수시장.

보고 미래 100년 비전을 수립한다는 취지다.

‘여수 개항 100년사’는 개항 전후 여수항의 모습과 역할, 도시 공간 변천사, 여수항의 시대별 변화와 운영 성과, 역사적 사건, 문화예술 행사 등 여수항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여수항의 미래 비전’과 관련한 부분이다.

‘여수 개항 100년사’는 여수항을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를 통한 ‘사람 중심의 해양복합관광 거점’ 조성을 골자로 한다.

해양레저스포츠 콘텐츠를 확장하고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육성해 해양복합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관광객들에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크루즈 선박의 기항지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유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

박람회장의 사후활용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았으나 리모델링을 통해 최대한 박람회장 전체를 정비하고 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등을 통해 시민과 지역산업

이 상생할 수 있는 항만이 되도록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여수 개항 100년을 맞는 지금 여수항 미래비전은 ‘사람과 공존하는 해양복합관광 거점 여수항’으로 설정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 ●여수 개항 100주년 개발 시동

여수시는 지난 2021년 3월 수산관광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 ‘여수개항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해 왔다.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단기 및 중장기 과제 발굴, 관련 자료수집, 심포지엄 개최, 책자발간, 타임캡슐 제작 등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에는 국비 2065억원과 도비 10억원, 시비 740억원 등 총 2149억원이 투입된다.

중장기 사업도 순항중이다. 크루즈 전용 터미널 확장사업과 크루즈 관광활성화, 박람회장 시설 리모델링,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여수항 항계확장, 신항~신복항 진입도로 확충, 국동항~여수구항 연결도로 개설, 여수항 항만친수공원 조성 등 9개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항의 성장 잠재력은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자랑하는 ‘미항’이면서 해상 관광과 교통 거점이라는 데 있다. ‘남해안 거점 도시 미항 여수’라는 여수비전과 상통 한다”며 “대한민국의 나폴리”라는 여수항만의 매력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복합해양관광·레저 거점항으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 전기차 구매보조금 350대 지원 여수시, 탄소중립 도시 실현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올 상반기 전기차 350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친환경 전기차 보급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나선다.

시는 환경부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전기승용차 200대, 최대 1300만원 △전기화물차 150대에 대해 최대 2104만원까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여수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여수시에 분사·지사 등이 위치한 법인·기관이며 대상자 당 1대만 지원된다.

전기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이 결정됐더라도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여수=이경기 기자

## 희망2023나눔 캠페인 초과 달성 여수시, 목표액 대비 140%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희망 2023나눔 캠페인’에 자체 목표액 대비 140%를 초과 달성했다.

27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여수시는 자체 목표액인 9억 1128만원보다 3억5800여만원이 초과 달성된 12억6900만원을 모금해 사랑의 온도탑 140도에 도달했다.

시는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여수’란 슬로건 아래 지난해 12월1일~1월31일 ‘희망2023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위기가정 긴급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적 약자 돌봄, 교육·자립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 여수시의회 226회 임시회 파행... 두 국회의원측 대리전?

## 갑·을 지역구간 대립각 안전 부결에 집단 퇴장 “의회민주주의 훼손행위”

여수시의회임시회가 지역구간 집안싸움에 파행으로 끝나며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들은 시민은 안중에 없고 두 국회의원의 대리전에 나서고 있는 시의원들의 행태에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수시민협(상임대표 이은미)은 27일 ‘여수시의회, 집안 싸움에 임시회 파행’이라는 논평을 내고 갑을 지역구간 불협사나운 패싸움에 시민들이 허탈해 하는 등 시의회 존재감에 의문이 든다고 비판

했다.

여수시의회 226회 임시회가 지난 14~22일 열렸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 본회의장에서는 여수 대학병원 유치 결의안 채택에 나섰지만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절반의 의원이 중도 퇴장 후 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정현주 의원이 상정한 ‘국립 순천대의과대학 및 여수대학 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이 을지역 의원 9명 찬성, 갑지역 의원 11명과 무소속 문갑대 의원이 포함된 12명의 반대로 부결되자 을지역 의원 전원도 20분 정회를 선포하고 복귀를 설득했지만 박영평 의원 1명만 자리로 돌아왔을 뿐 나머지 의원들은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전남대학 교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과 나머지 안건들은 을지역 의원들이 없는 반쪽회의로 (갑지역 12명, 박영평의원, 무소속 4명)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안전 발의 의원이 나가고 없는 바람에 질의와 설명조차 없었다.

여수시민협측은 “여수대학병원 설립은 갑을 두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를 압박해도 어려운 사안이다. 결의안 하나조차 합의를 못하는 여수시의 요구를 중앙정부가 들어줄리 만무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느 하나도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며 “갑을 두 국회의원을 축으로 하는 여수시의회의 해묵은 분열

은 대학병원 유치 뿐 아니라 여수시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두 국회의원을 축으로 두 패로 갈라져 싸우는 모습에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시민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상대방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여수시를 위해 갈등을 조정하고 최적의 의견을 도출해야 할 두 정치인들의 주도권 싸움과 시의원들의 꼭두각시 대리전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말했다.

이은미 여수시민협 상임대표는 “두 국회의원은 파당정치를 끝내고 직접 만나 여수대학병원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 여수시, 마을공동체 활동 시행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26곳을 선정하고 3월부터 본격 지원에 나선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침체된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다.

올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마을 네트워크 활성화, 마을 테마사업 등 ‘마을공동체 단계별(씨앗·새싹·열매) 사업’과 아동·노인 등 돌봄 사각지대 보안을 위한 ‘행복드림 돌봄공동체사업’으로 추진된다.

마을공동체 씨앗단계 사업은 시 자체에서 22곳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500만원, 새싹·돌봄 사업은 전남도에서 4곳을 선정해 최대 1000만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한다.

여수=이경기 기자